

37주 의심의 성과 절망 거인

쉬운 길을 택했던 두 순례자는 홍수를 만났다. 그들은 순례 길로 되돌아가려고 애썼지만 갈 수 없었으며, 다시 잠에 빠져서 절망 거인에게 붙잡히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온 힘을 다했지만 그 밤에 그들이 넘어온 층계 계단까지 갈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조그마한 피난처 아래에서 날이 새기까지 앉아 있었다.¹ 그러나 피곤했기 때문에 잠에 빠지고 말았다.² 그들이 누워 자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의심의 성(Doubting Castle)이라고 부르는 성이 있었고, 그 성의 주인은 절망 거인(Giant Despair)이었다.³ 두 순례자는 지금 절망 거인의 땅에서 자고 있었다.

절망 거인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신의 땅을 돌아보다가 자신의 땅에서 자고 있는 크리스천과 소망을 붙잡았다. 거인은 거칠고 난폭한 목소리로 두 순례자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왔으며 자신의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두 사람은 거인에게 자신들이 순례자이며 길을 잃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거인이 “너희는 내 땅을 침범해 짓밟고 누워 잤기 때문에 나와 같이 가야겠다”라고 말했다. 거인은 그들보다 힘이 세었기 때문에 두 순례자는 거인에게 끌려갔다. 두 순례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잘못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인은 두 순례자를 몰아 자신의 앞에 가게 했고, 그들을 자신의 성의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가두었다(시 88:18).

두 순례자는 감옥의 더러움과 악취를 견딜 수가 없었다. 이곳에서 두 순례자는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까지 빵 한 조각과 물 한 방울 없이, 한 줄기 빛도 없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볼 사람도 없이 누워 있어야 했다. 그들에게는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서 격리되었다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었다.⁴ 감옥에서 크리스천은 갑절로 슬펐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된 조언 때문에 이런 곤경에 빠졌기 때문이다.⁵

절망 거인에게에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무기력(Diffidence)이었다.⁶ 절망 거인이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즉, 자신의 땅을 침범한 두 사람을 잡아서 자신의 지하 감옥에 처넣은 것을 말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들을 어떻게 처치하는 것이 좋을지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그들이 어떤 자들이며,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자들인지 남편에게 물었다. 거인이 그녀에게 대답하자 그녀는 남편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을 무자비하게 때리라고 조언했다.

그래서 거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야생 사과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지하 감옥에 있는 순례자들에게 내려갔다. 순례자들이 거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거인은 그곳에서 개에게 하듯이 그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순례자들에게 달려들어서 무섭게 때렸다. 순례자들은 매 맞는 것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고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이렇게 한 후 거인은 순례자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애곡하고 슬퍼하도록 내버려 두었다.⁷ 그래서 두 순례자는 종일 한숨과 쓰디쓴 애통함으로 시간을 보냈다. 다음 날 밤, 거인의 아내는 남편과 그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거인의 아내는 그들이 살아 있다는 말에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만들라고 거인에게 충고했다.

아침이 왔을 때 거인은 전과 같이 확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내려갔다. 그들이 전날 매 맞은 상처로 괴로워하는 것을 본 거인은 그들에게 말했다. “이 장소에서 결코 빠져나갈 수 없으니

칼이나 밧줄이나 독약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왜 이런 고통을 받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나가게 해 달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거인은 화난 얼굴로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거인은 분명히 그들을 죽이려는 듯 보였다. 그러나 거인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서 (때때로 화창한 날에 발작이 일어났다) 잠시 손을 쓸 수 없었다. 따라서 거인은 물러갔고, 순례자들은 전과 같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옥에 갇힌 두 사람은 거인의 권면에 따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논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는 다음과 같다.

크리스천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은 비참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욥 7:15). 저에게는 지하 감옥보다 무덤이 더 편합니다. 거인의 말을 따를까요?

소망 정말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비참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저에게는 더욱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고향의 주인께서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죽이라는 거인의 충고를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는 단지 그의 몸만을 죽이는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는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여, 무덤에 있는 것이 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살인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살인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⁸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법이 절망 거인의 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는 바로 우리처럼 절망 거인에 붙잡힌 어떤 이들은 그의 손에서 탈출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절망 거인을 죽게 만드실지, 어느 때든지 그가 우리를 가둔 것을 잊게 하실지, 조만간 우리 앞에서 그에게 발작을 일으키셔서 손발을 못 쓰게 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만약 그에게 발작이 일어난다면 나는 용기를 내서 온 힘을 다해 그의 손에서 빠져나갈 것입니다. 전에 그렇게 하지 못한 내가 바보스럽습니다. 그러니 내 형제여, 인내하십시오. 잠시 참고 견뎌십시오. 우리가 즐겁게 풀려날 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⁹

소망은 이런 말로 크리스천의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 속에서 그날의 슬픔과 괴로움을 견뎌 냈다.

저녁이 되자 절망 거인은 갇힌 자들이 자신의 충고를 따랐는지 여부를 살피려고 다시 지하 감옥으로 내려갔다. 절망 거인은 그곳에서 순례자들이 모두 멀쩡하게 살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두 순례자는 빵과 물을 먹지 못했고, 매 맞은 상처 때문에 숨을 쉬는 것 외에 아무것도 못 했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절망 거인이 그들이 살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절망 거인은 무섭게 화를 내면서 말했다. “너희가 내 충고를 무시했으니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최악의 것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 말에 두 순례자는 크게 떨었다. 내가 보기에 크리스천은 기절한 것 같았다.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린 후에 그들은 거인의 충고를 따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했다. 크리스천이 다시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소망이 다음과 같이 두 번째로 대답했다.

소망 형제여,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여기까지 정말 용감하게 오지 않았습니까? 아볼루온이 당신을 부서뜨릴 수 없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당신이 듣고 보고 느낀 것들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큰 어려움과 두려움과 놀라움들을 이겨 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이 지하 감옥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저는 본성적으로 당신보다 훨씬 약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 거인은 당신과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상처를 입혔고, 빵과 물을 주지 않았으며, 나도 당신처럼 어둠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견딥시다. 허영의 시장에서 어떻게 남자답게 행동했는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곳에서 쇠사슬도, 철장도, 피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수치스러운은 피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견디어 봅시다.¹⁰

밤이 다시 찾아왔다. 거인과 그의 아내는 잠자리에 들었다. 거인의 아내는 갇힌 자들이 거인의 충고를 따랐는지 물었다. 거인은 대답했다. “그놈들은 지독한 고집불통들이야. 자신들의 목숨을 굶기보다는 모든 고생을 견디겠다는 거야.” 거인의 아내가 말했다. “내일 그들을 끌고 성안의 뜰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이미 죽인 자들의 뼈와 해골들을 보여 주세요. 그리고 이 주간의 마지막 날에 당신이 그들의 동료들에게 한 것처럼 그들을 갈가리 찢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하세요.”

아침이 되었을 때 거인은 그들에게 다시 내려가서, 그들을 끌고 성안의 뜰로 데리고 가서 자신의 아내가 부탁한 대로 그들에게 뼈와 해골들을 보여 주었다.

거인은 말했다. “이들은 너희처럼 순례자들이었다. 너희처럼 내 땅을 침범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한 때 내가 그들을 갈가리 찢어 죽였다. 그러니 열흘 안에 너희도 이렇게 죽을 것이다. 자, 다시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라.” 이 말과 함께 거인은 그들이 감옥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들을 계속 때렸다. 두 순례자는 토요일 내내 전과 같이 비참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밤이 왔을 때, 절망 거인과 그의 아내인 무기력은 잠자리에 들었다. 그들은 다시 두 순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늙은 거인은 자신의 매질과 충고로도 그들을 죽이지 못할까 봐 걱정했다. 거인의 말에 아내는 대답했다. “나도 걱정됩니다. 그들이 누군가가 자신들을 구해 줄 것이라고 바라거나 자물통을 부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탈출할 소망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인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내일 아침 내가 그들을 조사해 보겠소”라고 말했다.

토요일 밤 자정쯤 되자 두 순례자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는 거의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되었다.¹¹ 아침이 되기 바로 직전,¹² 착한 크리스천은 갑자기 놀라면서 격렬하게 말했다. “이런 어리석은 자 같으니! 자유롭게 도망칠 수 있었는데, 이 악취 나는 지하 감옥에 누워 있었다니! ¹³ 저의 품에 약속(Promise)이라는 열쇠가 있는데 의심의 성에 있는 어떤 문도 열 수 있습니다.”¹⁴ 소망이 말했다.

“이것 참 기쁜 소식입니다. 착한 형제여, 열쇠를 꺼내어 어서 열어 보세요.”¹⁵

크리스천은 자신의 품에서 열쇠를 꺼내어 지하 감옥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열쇠를 돌리자 자물쇠 고리가 빠지면서 문이 쉽게 열렸다. 그리고 크리스천과 소망은 빠져나왔다.

성안의 뜰로 나가는 바깥문도 역시 열쇠로 쉽게 열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철로 된 성문에 이르렀다. 굳게 잠겨 있었지만 이 문 역시 열쇠로 열 수 있었다. 그리고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열린 문을 밀었다. 그러나 성문이 열리면서 뼈격거리는 소리가 났고 이 소리에 절망 거인이 깰다. 절망 거인은 두 순례자를 잡으려고 급히 일어났지만 다시 발작이 일어나서 사지를 쓸 수 없어서 순례자들을 뒤쫓아 갈 수 없었다.¹⁶

순례자들은 계속해서 달려갔고, 왕의 대로에 이르렀다. 거인의 관할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안전했다.

계단을 넘어선 그들은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절망 거인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이 계단에다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궁리하기 시작했다. 두 순례자는 그곳에 기둥을 세우기로 하고, 기둥에다가 다음과 같은 문구를 새겨 넣었다. '이 계단을 넘어서면 의심의 성으로 가게 됩니다. 절망 거인이 의심의 성을 지키고 있으며, 그자는 천성의 도시의 왕을 멸시하고, 그의 거룩한 순례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읽고 뒤에 오는 많은 사람이 위험을 피했다.¹⁷ 이 일을 마친 후 그들은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불렀다.

우리가 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발견한 것은 우리가 금지된 땅을 걷고 있는 것이었네.
뒤에 오는 자에게 주의하게 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이 부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세.
그들이 그곳을 침범해서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하세.

<Q&A>

1.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입니까? (삼하 22:3)
2.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의 위험성은 무엇입니까? (마 25:26)
3. 의심의 성과 절망 거인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창 32:6)
4.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 88:8; 히 12:6)

5. 크리스천이 갑절로 심적 부담감을 느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 53:6)
6. 죄의 결과로 의심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무엇이 찾아옵니까? (나 2:10)
7. 절망 거인이 두 순례자에게 목적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히 3:12)
8. 자살은 죄입니다. 더욱이 자살이 심각한 죄인 것은 회개의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살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롬 2:5; 행 1:25)
9. 두 순례자에게 지금 필요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롬 5:3-5)
10. 소망을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마 24:13)
11. 절망 거인의 역할은 결국 두 순례자의 믿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욥 2:1-2)

12. 탈출할 수 있는 시점은 무슨 날입니까? 그것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계 1:10)
13. 결국 문제 해결은 이미 우리에게 있었는데 무엇을 하지 않아서 고통받은 것입니까? (요일 5:14-15)
14. 기도와 약속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시 119:49-50)
15. 지극히 극한 상황 혹은 절망의 상황이라도 무엇을 의지하면 됩니까? (롬 4:21)
16. 두 순례자는 열쇠로 문을 열어 탈출할 수 있었으나, 삐걱거리는 문소리 때문에 거인이 깨 어났습니다. 다시 잡힐 위기에 처했으나 이들이 마지막으로 절망 거인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 1:6)
17. 왕의 대로로 돌아온 그들은 다른 순례자들이 곁길 초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팻말을 세웠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순례자들이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의 중요성을 말합니까? (딤후 4:2)